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 동 지 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어버이주일 메시지

## 모 성 (母性)

한 사회의 심장부는 가정이다.  
그리고 한 가정의 심장부는 어머니의 모성이다.  
그러므로 모성이 부패하고 병들면  
가정과 사회도 따라서 부패하고 병들게 된다.  
모성이 건전하고 성스러울 때  
그 가정과 사회는 밝고 신선하고 깨끗할 것이다.  
모성은 실로 강한 것이다.  
거룩하고 고마운 것이며 책임이 막중한 것이다.  
그러기에 잘못되면 그 결과는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잘 되면 온 세계를 바른 길로 움직여 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인 것이다.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라도  
이 나라의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해 주자.  
위로와 감사의 큰 박수를 우리의 어머니들께 보내 드리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2).

이중윤 원로목사



# 2018 흥해작전

## '교회 소생과 부흥 (Church Revitalization & Revival)' 6월 6일(수)~6월 25일(월), 오전 5시 30분

서울교회 흥해작전은 개개인 성도들 앞을 가로 막고 있는 흥해가 갈라지고 건너게 되는 기적의 기도작전으로써,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27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교회의 자랑이요 살아 움직이고 있는 역사다.

2018 흥해작전 참모부(참모장 오치열 장로)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함을 오직 행하는 믿음으로만 헌신하기 위한 흥해작전의 승전행진을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이번 2018 흥해작전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새벽을 가르며 달려 나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으므로 우리 서울교회와 우리나라와, 교우 개인의 흥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소원한다.

I. 주제 : 교회 소생과 부흥  
(Church Revitalization & Revival)

II. 주제 성구 :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III. 행동지침

- 1)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모두가 동참하자.
- 2) 개인, 가정, 국가의 흥해를 기도로 극복하자.
- 3) 말씀과 기도로 적극 무장하자.

IV. 일시 : 06월06일(수) ~ 06월25일(월)

V. 섬김위원

- 사령관 : 이종윤 원로목사
- 지 도 : 서명철 목사
- 참모장 : 오치열 장로
- 차 장 : 김광태 집사
- 기획참모 : 윤명구 집사, 김영희1 집사
- 예배참모 : 황병석 집사,
- 동원참모 : 김승록 집사, 스테반회, 권사회
- 홍보참모 : 김규태 집사,
- 봉사참모 : 김찬진 권사 (권사회 전체)
- 차량참모 : 예완식 집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 한국기독교 학술원 제 52회 학술 공개 세미나 『3.1 운동과 한국 교회』

### 5월 28일(월) 오후 2시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 이종윤 원로목사)은 오는 5월 28일(월)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3.1운동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제 52회 학술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 2018 흥해작전 기도제목

- 1)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 영광, 찬양을 드립니다.
- 2) 신음하는 서울교회 원망과 시비 대신 감격, 순종,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 3) 병들어 시험을 당하는 서울교회를 향하여 "소자야, 일어나라" 명하소서.
- 4)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흥해가 갈라지고 마른땅을 밟고 건너듯 승전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 5) 하나님의 가정, 교회, 직장, 국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쓰임 받게 하옵소서.
- 6) 전쟁의 소문 사라지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건설케 하옵소서.
- 7) 교회에 대한 각종 송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판결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VI. 강사
- 6월 6일(수) : 이종윤 원로목사(개전예배)
  - 6월 7일(목) : 서명철 목사 (나 흠 1장)
  - 6월 8일(금) : 서명철 목사 (나 흠 2장)
  - 6월 9일(토) : 서명철 목사 (나 흠 3장)
  - 6월 11일(월) : 장석남 목사 (하박국 1장)
  - 6월 12일(화) : 장석남 목사 (하박국 2장)
  - 6월 13일(수) : 장석남 목사 (하박국 3장)
  - 6월 14일(목) : 조원영 목사 (스바냐 1장)
  - 6월 15일(금) : 조원영 목사 (스바냐 2장)
  - 6월 16일(토) : 조원영 목사 (스바냐 3장)
  - 6월 18일(월) : 서창원 목사
  - 6월 19일(화) : 서창원 목사
  - 6월 20일(수) : 서창원 목사
  - 6월 21일(목) : 서창원 목사
  - 6월 22일(금) : 서창원 목사
  - 6월 23일(토) : 서창원 목사
  - 6월 25일(월) : 이종윤 원로목사(종전예배)



##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박미현2 이종욱 김광민 임선철 / 이영주 오치열 / 하숙 이강인 / 하숙 전희정 김영표 / 권소희 허경화 송정윤 임연주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찬양예배 전 교회 회복 기도회

찬양예배 전 오후 4시 30분부터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교회가 불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찬양과 기도 뿐이다. 찬양과 기도는 사탄의 결박을 푸는 가장 큰 무기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 새벽기도회

매주 월요일~토요일  
새벽 5시 30분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 119:148)

이상규 박사, 김권정 박사가 강사로, 박명수 박사, 연규홍 박사가 논찬으로 선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란다.

글로벌 어머니상을 수상하고

#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네 딸



오영숙 권사(12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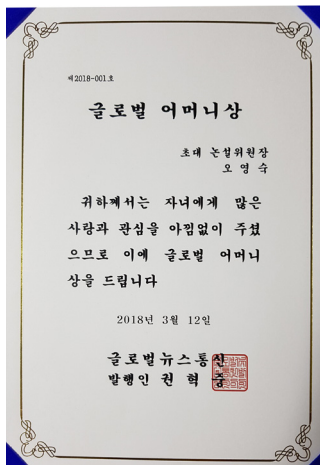
어머니날이면 나는 늘 어머니를 그린다.

살아가실 때 못다 한 정성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어머니를 그리면서 찬송가의 “언제나 바라봐도”(박재훈 곡), “어머니의 넓은 사랑”(구두회 곡), 특히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부르면서 마음을 달래곤 했던 나에게 뜻밖에 지난달 “글로벌 어머니상”을 받았다.

어머니 상을 받은 의미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 잘 키웠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사실 나는 네 딸을 낳아 평범하게 키우면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또 거기에는 정의롭고 성실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가혹적인 이 말씀(살전 5:16~18)은 즉, 자녀에게는 물론이려니와 남에게도 그렇게 해야 함으로써 평안함이 온다고 강조하면서 살아왔다.

오 남매 중의 하나인 나에게 어머니는 5월이 되면 물든 새 나뭇가지를 피리로 만들어 찬송가 곡들과 아리랑, 매기의 추억 등을 불러 주시고 즐겁게 해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 많이 하고 정직 성실해야 하며 특히 내적인 미를 키우며 다소곳해야 한다 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던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하이 소프라노로 불러 주시면서 감동케 해 주셨고 늘 평안을 거듭 말씀하셨던 일들이 지금도 감동이 된다.

나의 형제자매는 두 명의 의상 디자이너와 두 화가(교사, 교수)와 한 명의 작곡가(교수)를 키워 주심은 기독교 가정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평화롭고 즐거운 삶 속에서 “세상적 물질”과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택했기에 삶의 가치 있는,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네 명의 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자라면서 학교에서 먼거리에서 살았어도 대학에 열심히 다녔으며 네 딸들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개근상을 받으면서 자기 맡은바 열심히 했으며 입시 학원은 다니지 않았지만 성적도 우수했고 스스로 책임을 다 완수하고 대학도 자녀들이 원하는 연극, 화학, 무용, 음악을 전공해 사회인으로 봉사하

며 살고 있다. 자녀들도 잘 키워 12명의 손자, 손녀들 중 해외에 있는 손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상, 한 손녀는 대학에서 성적우수 장학생, 손녀는 동시를 써서 금상 등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주어 자랑스럽기만 하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네 딸들은 어릴 때는 나는 교사로서, 성장해서는 친구로서, 지금은 오히려 내가 딸들로부터 시대적 변화의 교육을 받고 자문을 받으면서 무엇을 모를 때는 언제나 묻고 상의 대화 함으로써 딸들이 나에게 선생이 되어 즐거움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나에게서 물론 이려니와 이웃들에게도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상을 받았다는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현재 저 출산시대로 인해 두뇌가 줄어들어 한국에 위기가 왔다고 세계 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을 들을 때 자녀를 하나, 둘이 아니라 많이 낳아 인성적으로 잘 키워야 국가 발전에 큰 일꾼을 배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나에게 글로벌 어머니상을 주었다고 본다.



정병무 은퇴장로(12교구)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한 생명을 예정 가운데에 보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길러 주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늘 길을 보게 하시고 이삭의 순종으로 그 길을 따르게 하시며 야곱의 회개로 천국시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의 큰 뜻에 이끌리어 달려온 삶의 뒀안길을 구비 구비 돌고 돌아 여기 '내 잔이 넘치나이다'로 고백케 한다 믿고 배워서 행하는 앞길에 보이지 않은 사랑의 손길로 인도 동행 중만하시어 세상 끝날 영생의 천국에 손들고 들어가리

우러러 땅 끝까지 기쁜 소식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길을 호산나로 예비하여 하늘나라 영화의 찬미 경배하며 함께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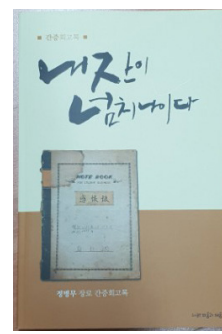
.....

## 추천의 글

교회에 나가는 자손에게는 가문을 더럽힌 자라 하여 문중에서 체벌(종매)을 때려 추방하는 엄격한 집안에서 성장한 정병무 장로님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우상(偶像) 장수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창조적 능력으로 보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말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서 대사건이라 할 것이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체험이 있겠으나, 이를 글로 남겨 후세들이 읽고 본받을 귀감이 된다는 것은 귀한 일이다. 정 장로님은 기독교 신앙인의 안목으로 재래 종교들을 비판하고, 진리요 길이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려는 사명으로 노령에 이 글을 쓰고 있다.

이중윤 원로목사



\* 정병무 은퇴장로님께서 신앙간증집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출간하였습니다. 책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6월 2일 이후 사무국 정승균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피첩



몇 년 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다산 정약용 전을 열었습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잡은 유품은 하피첩(霞帔帖)이었습니다.

10년간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 간 남편에게 아내 흥씨는 그리운 마음을 담아 훈례 때 입었던 5폭 붉은 치마, 그러나 이제는 다 낡고 빛바랜 치마를 보내왔습니다.

"병든 아내가 낡은 치마를 보내 왔네  
천리 먼 길 애뜻한 정을 전해왔네  
흘리간 세월에 붉은빛은 이미 바래  
늘그막에 드는 마음 서글픔 가눌 수 없구나  
마름질로 작은 서첩을 만들어  
자식들 일깨우는 글귀를 적었다  
부디, 어버이 마음을 잘 헤아려  
평생토록 가슴에 새기려무나"

정약용은 이 치마를 자르고 글을 써 두 아들에게 줄 책을 만듭니다.

"나는 아내의 활옷을 자르고 작은 첩자 하나를 만들고 붓끝이 가는 대로 훈계하는 글을 써서 두 아들(정학연, 정학우)에게 전해주었다. 훗날 그들은 내 글을 읽고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양친 부모의 손때 묻은 자취를 보면 그리운 마음이 몽클할 것이 아닌가"

정약용은 이 하피첩 제작 이유를 위와 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결혼 한 딸에게는 하피첩을 만들고 남은 아내의 해진 치마를 화폭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한 매화까지 위에 두 마리의 새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다정스럽게 앉아 있는 그림을 그려 보냅니다.

정약용은 6남 3녀를 두었으나 4남 2녀가 3세 전에 죽고 자신은 멀리 귀양 온 상태에서 홀로 아이들의 죽음과 자녀양육에 고생하는 아내와 아버지 없이 크는 자녀들에게 교훈과 훈육의 글을 보내 부정과 못다 준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하피첩을 통해 다산은 자식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특히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인(仁)을 실천하는 근본이란 의미로 효도를 뜻하는 '孝'자와 우애를 뜻하는 '弟'자 옆에는 붉은색 동그라미까지 표시하였습니다. 다산은 그 힘든 상황에서도 자녀들에게 마음을 크게 쓰고 긍정적 사고로 당당하게 살라는 참으로 깊은 아버지의 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요즘 아버지들은 젊어서는 돈을 버느라 시간에 쫓겼고, 나이가 들어서 자식과의 대화 단절로 왕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무관심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부모에게 명령하십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효를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거부하는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이렇게 효의 종교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변하고 세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사람 사는 곳이라면 영원히 간직해야 할 가치들이 있습니다. 2018년 이 봄, 정약용의 하피첩이 새삼스럽게 기억됩니다.

유은경 집사 (순례자)

## 강남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공사 5월 1일~6월 10일

강남구민회관이 지하주차장 공사 관계로 5월 1일(화)~ 6월 10일(주) 동안 주차를 금지한다.

### 동정

■ 연주회 : 박정선 은퇴장로(11교구) 창약회 창립 60주년 기념연주회, 5월11일(금) 오후8시, 예술의 전당

■ 금주의 식사 : 불고기 덮밥

차영도 집사 정미연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

###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5월13일	주일	대하 6-8		미 1-7,나 1-3,합 1-3	
5월14일	월	대하 9-11		슥 1-3,학 1-2,속 1-5	
5월15일	화	대하 12-16		속 6-14,말 1-4	
5월16일	수	대하 17:1-20:30		마 1-6	
5월17일	목	대하 20:31-23:21		마 7-11	
5월18일	금	대하 24-27		마 12-15	
5월19일	토	대하 28-30		마 16-20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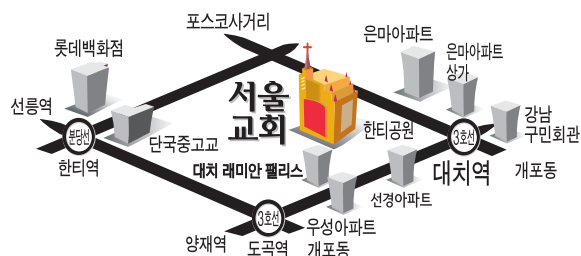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 교회가 속히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2.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3.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